주 간 기 도 정 보

2024. 6. 4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20만 성도, 폭염 속 '거룩한방파제'로 대한민국을 지키다

국내외 각지에서 결집, 광화문-숭례문 일대 가득 메워

폭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전국과 전 세계에서 모인 성도들이 기도의 손을 맞잡았다. 해마다 선정성 논란을 일으키는 퀴어집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성혁명 교육과정, 국가인권기본계획과 학생인권조례를 저지 및 폐지하기 위한 '2024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1일 개최됐다.

대회는 서울광장 대한문을 중심으로 열렸지만, 참석 성도들이 북쪽으로는 광화문, 남쪽으로는 숭례문까지 1km에 달하는 도로를 가득 메웠다. 총 20만여 명(주최 측 추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을지로입구역-종각역 일대에서는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곳곳에는 경찰이 배치돼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했다.

개회식에서 대회사를 전한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는 "선진국이 젠더 이데올로기 공격에 정복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유는, 성혁명 파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영적 거룩한 방파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잠시도 멈추지 않고 나라와 교회를 허물려는 성혁명 세력에 맞서,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고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인사말을 전한 준비 위원장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통합대회를 앞두고 특별히 철야 기도회로 준비했고, 전국에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부르짖었다"며 "오늘 이 대회는 한국을 넘어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서구의 교회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주역이 돼 거룩한 물결을 전국과 세계로 펼쳐나감으로, 세계가 거룩해지는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제재하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해치며, 남녀 양성에 기초한 대한민국 법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초헌법적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저부터 국회에서의 거룩한 방파제가 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속에 건강하게 커 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선정적인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어른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는가"라며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문제의 법안들이 자동 폐기됐지만, 야당이 192석을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앞으로 4년간 기도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특별위원장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는 "오늘의 모임이 모임으로 끝나선 안 된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 교회로 돌아가 이 악법을 알려야 한다. 제자광성교회 홈페이지 또는 오늘 교회 부스에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전단지와 피켓을 드린다. 이 모임이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악법을 365일 막아낼 줄 믿는다"고 전했다.

마지막 순서로 이어진 퍼레이드는 일방향으로 진행됐던 예년과 달리, 규모에 맞게 2개 노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5천여 명의 청년 기수단이 선두로 나서 1팀은 숭례문 방향으로, 2팀은 광화문 방향으로, 각각 2.2km와 1.6km 거리를 행진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요한복음 17:17,19)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느헤미야 2:17)

하나님, 6월 1일 퀴어축제로 성오염 물결을 일으킬 때 한국교회가 거룩한 방파제로 맞서 싸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성혁명 교육,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끊임없이 나라와 교회를 허물려는 시도들로 곤경에 처한 대한민국의 소망은 거룩함으로 일어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 먼저 세속화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세대 속에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로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거룩한 사랑 앞에 모든 영혼이 주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는 영광의 그날을 이루어 주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그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북한, 오물 풍선에 이어 나흘째 GPS 전파 교란 공격 지속
아동절에도 ‘핵보유 정당’ 되풀이…“힘 약하면 미래 짓밟혀”

북한이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를 전후해 서북 도서 일대에 대한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됐다.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민간에는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GPS 공격으로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의 내비게이션이 한때 오작동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밤 남쪽으로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내려보낸 데 이어 29일부터 나흘째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고 있다.

또 실패로 끝난 지난달 27일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30일 초대형 방사포 일제 발사 등 복합적 도발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31일 오물 풍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 “우리 측을 향해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를 지속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북한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스스로 전 세계에 자백한 것이자, 북한 체제 내부의 난맥상과 정책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술책으로 결코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은 무모하고 헛된 도발 대신, 전체주의 억압통치 아래서 도탄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2천6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북한이 1일 국제아동절을 맞아 “힘이 약하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무참히 짓밟힌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핵 보유가 정당하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발전, 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 중 하나”라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아동들의 열악한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면 평화의 원수인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우리 국가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할 수 있는 강한 자위력을 갖출 때만이 국가의 존엄과 국권, 인민들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줬다”고 선전했다.

특히 “핵 보유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면 (중략) 핵 참화의 재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당의 육아 정책에 의해 나날이 튼튼해지는 귀여운 아이들,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아동절은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명절이다. 북한은 옛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했음에도 관습대로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한국과 다르게 공휴일은 아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예레미야 23:18-19,2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에베소서 3:12-13)

하나님,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물 풍선과 위성항법장치 교란으로 계속해서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를 행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함을 꾸짖어 주십시오. 체제 유지를 위해 잘못을 외부 탓으로 돌리며 핵 보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김정은 정권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교회의 간구를 통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의 노하심을 면케 하소서. 북한의 상황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저 탄식이 터질 수밖에 없는 2천600만 주의 백성들을 친히 돌봐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여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고 더욱 이 복음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이들의 생수가 되고 주님의 은혜가 양식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홍해를 건너게 하심 같이 요단 물을 건너게 하시리라”

한국OMF 통해 20대 초반의 청년들 최연소 일본 선교사 파송

헤브론원형학교 졸업생, ‘용감한 정예병’이란 이름으로 파송 국가 섬겨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 선교단체의 최연소 선교사 자격으로 5월 말 출국했다.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헤브론원형학교 졸업생 6명이 한국OMF에서 주관하는 2년의 단기선교사 자격으로 일본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된다고 헤브론원형학교 용감한정예병 파송본부가 22일 밝혔다.

20대의 선교사 헌신이 급감하고 있는 이때, 160년 전 21살의 나이로 중국 선교에 나선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 시작된 선교단체 OMF를 통해 한국의 다음세대가 선교사로서 첫발을 떼게 됐다.

한국OMF는 지난 13일 방배동 선교회 예배실에서 파송 예배를 하고 이들 6명의 청년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동아시아인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OMF의 사명을 위해 일본OMF 필드의 단기선교사로 파송한다”는 내용의 파송장을 수여했다.

헤브론원형학교 용감한정예병 파송본부는 “한국OMF로부터 이 단체 역사상 정식 선교사로 파송 받는 최초의 최연소 선교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미 그동안 많은 졸업생이 선교사로 나갔지만 정식 선교사 비자로 파송 받아 출국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 조완순 선교사는 “학교 설립을 준비할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17세에 그리스도를 만나 선교사의 꿈을 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에서도 같은 다음세대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개교해 현재 50여 명의 자비량 교육선교사들과 함께 이들을 양육해 왔다”며 “21세기에 다시 한번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세워져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헤브론원형학교는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15년부터 모든 졸업생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등 20여 개국에 '용감한 정예병'이란 이름의 단기선교사로 파송해 왔다. 이들 청년 선교사는 2년간 단기선교사로서 파송 국가를 섬기며 장기 선교사의 삶을 준비해 왔다.

조완순 교장은 "학교 설립 초기에는 이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파송하겠다고 하는 교회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선교사 헌신자가 급감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다음세대 선교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졸업생들의 모교회를 비롯해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교회나 기관들이 있지만, 이는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여호수아 4:23-24)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2:1-2)

하나님, 선교사로 자신을 드린 모든 다음세대를 축복하며, 순종하는 걸음 속에 선조들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항상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선교 현장에서 때때로 자신의 죄악과 무능함 등을 마주할 때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나아가 수치와 한계 너머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선교 헌신자 감소와 현장 선교사 노령화로 고민하는 이때, 한국교회가 더욱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서서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선교사로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믿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이들을 통해 온 땅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알며, 주께 돌아와 믿음의 경주를 함께 이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